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0 “우리도 함께 뛴다”

“마라톤은 신이 내린 보약… 일도 운동도 열심히”

한전 광주전남본부

“열심히 뛰어 시민에게 ‘매우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여성구) 임직원들이 제49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에 앞서 시민에게 전기 공급 ‘매우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마라톤동호회 ‘뛰아모’(뛰다보니 이를다워진 사람들·회장 양대동)은 이번 대회를 시민들이 ‘매우만족’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봄과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뛰아모’는 지난 2001년 뒷풀 때만 해도 회원수 20명 남짓이었다. 13년이 지난 현재 본부 회원만 80명, 사업소를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다.

이번 대회에도 사업소 참여 직원을 포함해 50여명의 회원들이 철각을 자랑할 예정이다.

‘뛰아모’는 ‘고·고·고정신’으로 달린다. 함께 뛰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건강하고의 미지막 글자를 편 슬로건이다.

양대동 회장은 “내부 고객인 우리가 먼저 ‘매우만족’ 해야 외부 고객인 지역민들에게 매우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 원동력은 건강이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이 내린



한전 광주전남본부 마라톤동호회 ‘뛰아모’ 회원들이 3·1절 마라톤대회를 출전에 앞서 피팅을 외치고 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제공>

13년 역사 ‘뛰아모’ 회원 50명 참가

“고객이 전기서비스 ‘만족’ 할 때까지 뛸 것”

보아인 마라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라톤은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신이 내린 보약이라고 애찬했다.

‘뛰아모’ 회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고·고·고 정신을 발휘해 ‘신나는 일터 만들기’로 연계한다는 생각이다. 함께 달리면서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피팅을 외치며 목표 지점을 통과하면 자연스레 유대감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함께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끈끈하고 애恸한 정도 생겨난다는 계기로 회원들의 이야기다.

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격려할 수 있어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좋은 기회라고 자랑했다.

양 회장은 “봄을 활짝 여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동계훈

련 성과를 평가하면서 회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열심히 함께 뛰면서 회합을 다지고 시민에게 매우만족 서비스제공을 위해 뛰고 또 뛰는 한전이 되겠다”고 말했다.

‘뛰아모’ 회원들은 맨형 박판석과장의 ‘광주전남본부 고, 고, 고, 양’이라는 구호에 맞춰 광주천을 달리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석민 볼티모어 입단… 등번호 18번

3년간 61억원에 계약

“오늘부터 팀훈련 참가”

‘빅리거’ 윤석민(전 KIA)이 18번을 달고 마운드에 오른다.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18일(이하 한국시간) ‘볼티모어’가 윤석민과 3년 계약을 했다. 볼티모어 구단 역사의 첫 한국인 선수다”며 윤석민과의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윤석민은 류현진(로스엔젤

레스 다저스)에 이어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두 번째 한국프로야구 선수가 됐다.

보장금액은 3년 557만 5000달러(약 59억)~575만 달러(약 61억원).

구단과 합의한 기준을 채우게 되면 최대 1325만 달러(140억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로 정식으로 볼티모어의

일원이 된 윤석민은 배번 18번을 배정받았다. 친정팀 KIA에서는 현역 시절 선동열 감독이 사용했던 번호로

영구결번으로 남겨져 있다.

국내 입국 없이 바로 시즌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이미 포수 조니 모넬과 투수 알프레도 아세바스 사이에 윤석민의 라커도 마련됐다.

윤석민은 18일 “26인 로스터에서

18번과 20번이 남아있어서 두 번호 중 하나를 요청했는데 20번 영구 결번이라 18번을 달게 됐다”며 “훈련이

시작된다. 긴장도 되고 페리기도 한다.

훈련 첫날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하다”고 새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예회관 후문 07 : 25, 비엔날레주차장 도로가 07 : 30 ☎ 010 9866 5014

▲한울산악회 2월23일(일) 통영 미륵산(국내내장케이블카), 남광주농협 07 : 30, 문예회관후문 08 : 00, 비엔날레 08 : 05※네이버카페 한울

▲광주산우회 2월23일(일) 경남 남해 설

윤산, 07 : 30 월드컵롯데마트 주차장,

07 : 40 대인광장, 08 : 00 예술문화원, 08 :

10 각파동그린장례식장 면은편※ 다음카페 광주산우회 ☎ 010 8616 0164

▲광주돌레길동호회 2월23일(일) 고하고 융오름 톨레슬길, 07 : 30 염주체육관,

07 : 40 백운동 동아병원, 07 : 50 광주역,

08 : 00 문예회관 후문 08 : 10 비엔날레주차장 05 : 30※ 다음카페 광주돌레길동호회

☎ 010 3608 9921

▲기독신악회 2월23일(일) 진도 돌석산(세

방나조), 07 : 10 광주공원, 07 : 30 광주역,

07 : 40 문예회관, 07 : 50 비엔날레주차장

05 : 00, 무등경기장 05 : 20, 비엔날레주차장 05 : 30※ 다음카페 광주기독교신악회

☎ 010 3602 4488, 010 4425 0103

▲광주산친구산악회 2월23일(일) 서산일

락산, 월간동호인식신경회 07 : 00, 남

구의회 맞은편 07 : 10, 금성주유소(능성동)

07 : 15, 신세계백화점 유희장 07 : 00, 비

엔날레 06 : 05※네이버카페 한울

☎ 010 3602 4216, 010 3646 1636

▲광주일산악회 2월23일(일) 하동 금오

산 시산제, 08 : 00 광주역 앞 출발(나라관

광)※ 다음카페 광주일산악회

☎ 010 7173 8978, 016 657 1240

☎ 011 646 3450, 011 259 0284

3월 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3월1일(토) 광양 협재봉

도솔봉 빠리봉 밥봉 한전선, 진월동 한마을

미트앞 06 : 20, 염주체육관주차장 06 : 30,

한국병원앞 06 : 40, 문화예술회관후문 06 : 50, 비엔날레주차장 07 : 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3월 2일(일)

▲광주청정산악회 3월2일(일) 서을 수락

산, 염주체육관 04 : 50, 봉선동 한일원빌

05 : 00, 산수오거리 05 : 05, 광주역 앞

05 : 10, 운암동<문화예술회관>후문 05 :

20, 비엔날레주차장 05 : 30※ 다음카페 광

주청정산악회

☎ 010 3603 3429, 010 8627 9945

▲한울신악회 3월2일(일) 거제 지심도&거

대교&부산 이기대 갈매길 트레킹, 남광

주동역 06 : 30, 문예회관후문 06 : 00, 비

엔날레 06 : 05※네이버카페 한울

☎ 010 3625 5234, 010 4328 7700

3월 12일(수)

▲광주청룡산악회 3월 12일(수) 전남 구례

계족산, 07 : 40 염주체육관, 07 : 50 백운

동로타리, 08 : 00 교원체육회관, 08 : 10

문예회관후문, 08 : 20 동광주IC입구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1

☎ 011 646 3450, 011 259 0284

“태권도 실업팀 창단하겠다”

전남태권도협 박홍식 회장

“반드시 실업팀을 창단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전남태권도협회 제19대 회장에 박홍식(64·사진·한식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출됐다.

전남태권도협회는 최근 나주시 스포츠파크 종합생활실에서 열린 ‘2014년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박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이날 투표에서 참석 대의원 21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낡은 임기인 2017년까지 협회를 이끌게 됐다.

그는 “전남태권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실업팀이 없다”

며 실업팀 창단과 투명한 협회 운영, 22개 시·군 협회와 협력 등을 약속했다.

태권도 공인 3단과 3급 사범·심판자

격증을 보유한 박 회장은 전남태권도 회장으로 임명되면서 전남태권도부회장,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화순농업고 시설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출전되었으며, 화순농체육관·대한체육관 등을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했다. 화순 태권도협회장과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주민 맞춤형 운동 처방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국민체력100 사업’ 선정

오늘부터 본격 서비스

광주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사무총장 김호립)가 정부의 ‘2014 국민체력100 사업’ 체력인증센터로 선정돼 19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과학적 시스템을 갖춘 개인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건강 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운동처방 및 상시 체력관리를 제공하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다.

김호립 사무총장은 “꾸준한 운동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자신의 스포츠 적성과 건강상태, 잘못된 운동 정보에 의해 무리한 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국민체력100 사업을 통해 자신의 신체 적성과 건강상태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개월간 만 19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2명의 전문 운동처방사와 2명의 측정요

분실공고

증권명: 광주전남스마트폰업 협동조합 출판증권
증권번호: NO. 제14753
주소: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36-1번지
회원번호: 상산실탄산업(주)
상기출자증권을 본심고고화</p